

이데올로기 초월한 북한 소시민의 보편적 고민

극단 '고래' 내달 8일 '벚' 공연
북한 소설 '벚' 원작 각색·연출
이혼 결심 앞둔 부모모습 그려
반도네은 연주 등 볼거리 다양
실제 탈북자 배우 김봄희 출연

북한의 백남룡 작가가 쓴 장편소설 '벚'이 연극작품으로 재탄생돼 광주시민들을 만난다. 극단 '고래'가 오는 7월8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극 '벚'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동명의 소설 '벚'을 원작으로 한다. 소설은 판사가 이혼소송을 청구한 젊은 여성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결혼생활마저 되돌아보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북한 문학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없이 오롯이 평범한 사람들의 연애, 결혼, 이혼, 육아, 직업 등 일상을 다룬 북한 최초의 작품이다.

특히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그늘 밑에 가려져 있던 북한사람들의 미시적 삶의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소설은 2011년 프랑스에서 번역 출간된 이래 남·북한 문학을 통틀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기록된 바 있다. 또 2020년 미국에서도 출판돼 미국 매체 '라이브러리저널'에서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소설은 출판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가정과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각 인물들이 느끼는 고민들은 여전히 시대적으로도 유효한 보편성을 띤다.

성악배우 '채순희'는 판사 '정진우'에게 남편 '리석춘'과의 이혼을 요청한다. '리호남'이라는 일곱 살 난 딸을 두었지만, 선반공인 리석춘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견디지 못하고 재판소로 나온 것이다. 이에 진우는 이혼 근거가 필요하다고 돌려보내고, 순희 부부의 사정을 조사하고자 그들의 집으로 향한다. 부부의 집에 도착한 진우는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순희와 석춘의 딸 '호남'을 발견하고, 본인의 집으로 데려와 재운다. 그 사이 쪽지만 남겨둔 채 출장 간 아내 은옥에게 진우는 괜히 서운하다. 순희와 석춘은 딸을 찾아 황급히 진우의 집으로 달려오고, 진우는 그



극단 '고래'가 오는 7월8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극 '벚'을 무대에 올린다. 사진은 무대에 서는 배우 이송이(왼쪽), 문종철.

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다. 진우의 따뜻한 식사대접에도 불구하고, 순희와 석춘은 냉랭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이에 진우는 자신이 처음 아내 은옥을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순희와 석춘의 마음을 돌려보기로 결심하는데...

소설 '벚'의 각색과 연출은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가능한

원작을 충실하게 인용해 연극화하고자 했다.

특히 북한소설의 말맛과 문체, 북한사람들의 감정과 정서 등 소설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지극히 북한적인 취향과 감수성을 연극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중점을 뒀다. 이로써 관객들은 북한 사회의 이질적인 정서를 느끼고 동시에 이를

초월하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고민에 공감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반도네은(아코디언과 비슷한 악기)'의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반도네은 연주자 이어진씨가 무대에서 깊은 여운의 선율을 전한다. 또 극 중 딸(호남) 역할로 등장하는 인형과 인형 조종자 등 연극적 볼거리도 다양하다.

특히 실제 탈북자로 18살에 남한으로와,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김봄희 배우가 무대에 선다. 이외에도 정나진, 김성일, 강일 등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력과 중견배우들을 통해 소설 속 활자는 어느새 움직이는 연극으로 완성된다.

연극 '벚'은 광주북구문화센터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전석 1만 원이다.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다. 연극은 만 12세 이상 관람가에 러닝타임은 120분이다. 공연은 7월8일 오후 2시와 7시 예정돼 있으며 오후 2시 공연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대상무형' 녹여낸 명품 서체... 서예가 박동진 작품전

내달 2일까지 남구문예회관

해남이 고향인 무상(無常) 박동진 서예가의 작품 12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개인 전시회가 다음 달 2일까지 광주 남구문예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사진)

고천(古泉) 나천수 선생께 사사한 박동진 서예가는 그동안 문예회관과 광주공원 전시관 등에서 고목회 16인 전시전을 비롯해 수 차례 그룹전시회 작품전을 개최했다.

20여 년 이상 서예에 정진하며 중국의 내로라하는 명필들의 서체를 갖고 닦은 박동진 서예가는 이번 전시회 대표작으로 본인의 철학과 삶이 녹아있는 대상무형(大象無形)을 뽑았다. 대상무형은 '큰 형상은 형태가 없다'라는 의미이다.

박동진 서예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정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붓을 놓고 싶지 않다. 서예를 통해서(書)의 기운을 덕인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ACC에서 한국 예술 배워요"

내달 부터 지역 연계 예술교육
유학생·다문화 여성 등 대상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시아 문화가치와 의미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주 여성, 어르신 등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오는 7월부터 두달 동안 8차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힘든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어르신 등 보다 많은 시민이 문

화예술을 누리고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ACC는 조선대 국제협력팀을 비롯한 광주 북구 가족지원센터, 광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과 협업을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어르신 등 160명을 선발했다.

ACC는 지역 내 교육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운영한다. 어르신이 직접 붓을 만져보고, 느껴보는 오감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고립감 해소 등 긍정적인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상설공연'으로 한바탕 즐기는 7월 여름

1일 시립창극단 '환천희지'
14일부터 청년국악콘서트
창극 '김신부부턴' 등 다양

광주예술의전당이 뜨거운 여름 7월을 맞이해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오페라·창극·교향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한 '광주상설공연'을 선보인다. 광주상설공연은 '목요상설공연'과 '국악상설공연'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7월 '국악상설공연'의 첫 공연은 1일 시립창극단이 '환천희지(歡天喜地)'를 주제로 꾸민다. 가야금, 피리, 해금 등 한국 전통악기로 들려주는 기악곡 '민요 메들리'와 소고를 들고 즉흥적인 춤사위를 보여주는 '입춤소고', 남도민요 '벚노래' 등 다양한 국악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7월에는 기획공연 '청년국악콘서트 시리즈 I~VI'을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토 3주간 선보인다.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한 임재현, 이상, 음유사인이 무대에 올라 무더운 여름날 광주공연마루를 찾는 시민들에게 신명나고 아름다운 국악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남도의 대표적 전통음악연주단인 '나주전통음악진흥회'와 퓨전국악그룹 '늘숨'이 이번 기획공연에 참여한다.

이 밖에 7월 한달간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오페라단의 공연과 가페라 가수 '이한'과 함께하는 플루트 앙상블 공연 등 매일 다양하고 새로운 공연을 볼 수 있다.

광주상설공연은 7월 한달 간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리며, 모든 좌석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는 티켓링크,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희곡집 발간

동아연극상 희곡상 수상작
온·오프라인 서점서 판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창·제작 연극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작·연출 정진새)'의 희곡집을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극단이 공동 창·제작한 연극 '극동 시베리아 순례

길'은 코로나 시대 정점을 경험하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세대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며 겪는 우울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올해 초 열린 제59회 동아연극상에서 희곡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산티아고 순례길과 반대방향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순례자 '그'의 실제 여행과 온라인 여행을 두명의 기상청

연구원이 위성고 모니터로 관찰하며 나누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작·연출을 맡은 정진새 작가는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 영역' 작품을 통해 동시대 이슈와 사회상을 특유의 유머가 담긴 언어로 그려내는 작가이자 연출가로 평가받아 2021년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젊은연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출간하는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희곡집은 ACC 문화상품점과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